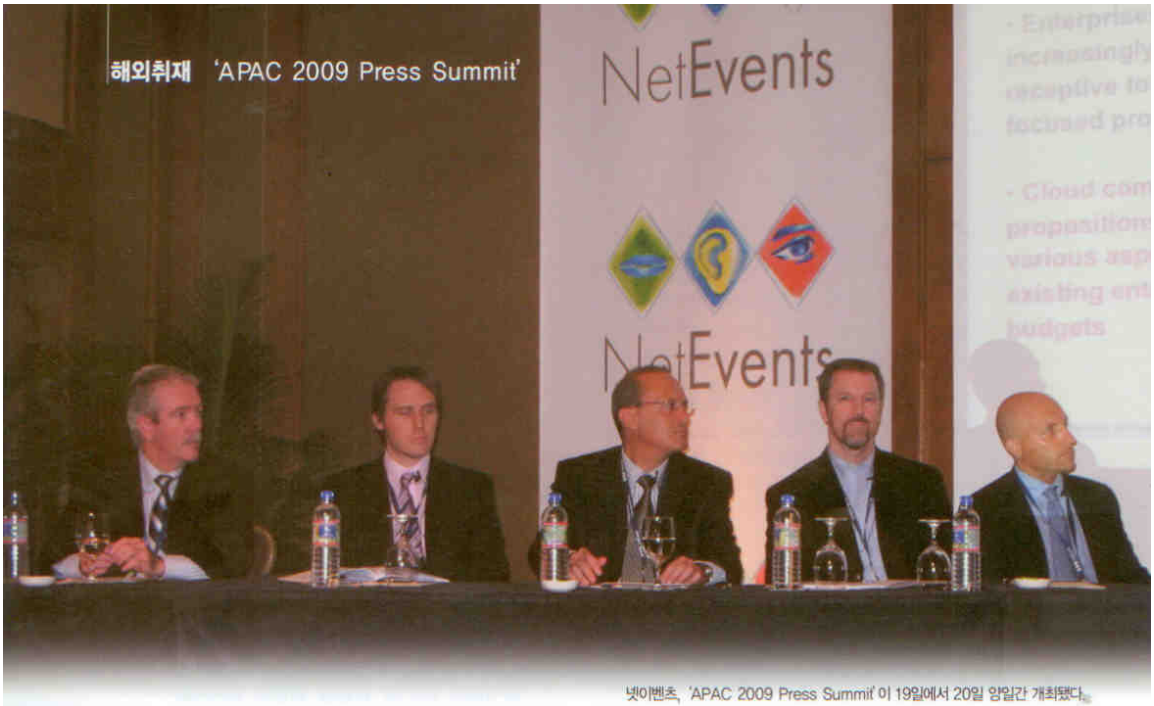
Publication：Computer World　　Date：2009/12
Subject: 'APAC 2009 Press Summit' Stand out with Technology in a Changing IT environment

컴퓨터월드



넷이벤츠, 'APAC 2009 Press Summit'이 19일에서 20일 양일간 개최됐다.

'APAC 2009 Press Summit'

변화하는 IT시장 환경에 기술로 승부하라

전세계 네트워크, 통신 및 보안 분야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넷이벤츠 APAC 2009 프레스 서밋'이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싱가폴에서 개최됐다. 넷이벤츠 아시아퍼시픽에선 최근 몇년간 위축돼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 왔던 글로벌 경기가 내년부터 풀릴것이라는 IMF 전망과 함께 글로벌 IT기업들의 업계 전망과 현황, 신기술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시스코, 에릭슨, 알카텔루슨트, 주니퍼, 티핑포인트 등을 비롯한 총 18개의 벤더와 IDC, BDA 리서치, 프로스트&설리반 등의 시장 조사기관이 참석했다.

행사 첫날에는 '데이터센터의 변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주제로 시작으로 '그린IT가 기업에게 갖는 의미' 'CDN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더넷의 향후 과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관리 및 보안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됐다. 또 이튿날인 20일에는 '초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향후 전망과 더불어 'LTE를 향한 준비' '성공적인 이더넷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차정석 기자 cjs@itdaily.kr

지난 11월19일에서 20일 양일간 싱가폴에서 열린 넷이벤츠 아시아퍼시픽에선 최근 몇년간 위축돼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 왔던 글로벌 경기가 내년 부터 풀릴것이라는 IMF 전망과 함께 글로벌 IT기업들의 업계 전망과 현황, 신기술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모델변화

첫 날 첫 세션에서 카밀 멘들러 양키그룹 글로벌 서비스 전략 총괄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변화와 클라우드' 라는 주제로 논의했다. 카밀 부사장에 따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신의 인프라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SaaS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려는 사용자의 경우 실제 사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원리는 기업 WA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자원을 통합해 전용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모바일 인력, 파트너 또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액세스를 확대 제공하려는 대형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데이터센터의 통합 방식보다는 기업 WAN과 보다 광범위한 인터넷 가용성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 검색 엔진, 경매 사이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점차 클라우드로의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사업자, 장비 업체, 소프트웨어 기업, SI 및 신생기업들 모두 조심스럽게 또는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같은 기존의 대표적 IT 기업들 역시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플랫폼 역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IT 기업 양상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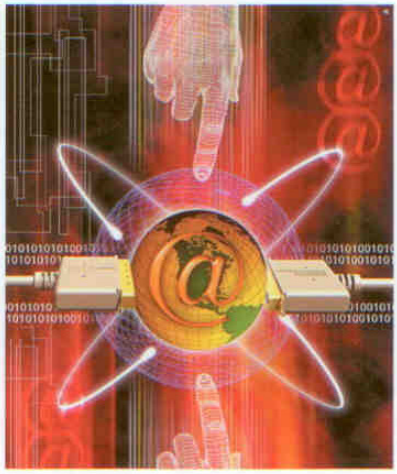
오랜 기간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온 SaaS 업체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무료에 가까운 인프라를 사용하며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드 내부 처리장치 마련으로 그린IT 활성화

두 번째 세션에선 데트 딘 BDA 리서치 대표 및 관리 이사가 '기업에게 있어 그린 IT가 갖는 의미는?' 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 업체의 대책에 대해 패널들과 논의를 거치고 점차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IT의 영향으로 인한 과제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데트 딘은 "클라우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아웃소싱은 기업 내부의 에너지 사용 절감해 주겠지만 결국 클라우드 업체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차라리 내부적으로 처리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은 혼 킷 람 타타커뮤니케이션 IP 프로덕트 관리 및 개발 총괄 수석 이사가 'CDN의 새로운 장을 열다' 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최근 정보의 교환 및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이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HD 방송 생중계는 물론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초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케 하는지 소개했다. 또 워터마크 및 핑거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CDN을 통한 컨텐츠 제공



을 위한 보안 및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더넷 서비스, 전 세계 연간수입 400억 달러

네 번째 세션은 '이더넷의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난 첸 MEF 사장 겸 CENT 공동 창립자 & CEO와 밥 맨데빌 아이오메트릭스 사장 겸 창립자가 공동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난 첸 사장은 인포네틱스 리서치는 2013년까지 이더넷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 연간 수익이 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더넷이 수년간 의존해 오던 PDH/SDH 또는 TDM 기반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이더넷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표준 서비스 정의, SLA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실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캐리어급 이더넷의 구현이 집중 논의 됐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의 고객에게 어떻게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경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ATM이나 프레임 릴레이와 같은 안정성과 보안을 획득하면서 이더넷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관리 및 보안 이슈' 라는 주제로 비드야 S. 나스 프로스트&설리반 ICT 디지털 미디어 팀리더 수석연구원이 강연했다.

쥬니퍼 네트웍스의 Eu Ween Kang, BT 아시아 퍼시픽의 Stephen Hopkins, 티핑포인트의 James Collinge(왼쪽부터)가 클라우드 컴퓨딩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선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린IT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비드야 연구원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연한 서비스 도입과 비용 절감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문제점과 기업이 적합한 보안 아키텍처 지원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및 대응 시간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보안 솔루션의 기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LET 기술로 휴대폰 데이터전송 활성화

20일 오전에는 메멧 발로스 젠밴드 경영총괄 부사장은 초고속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10년 5억에 달할 것으로 보는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들은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 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멧 부사장에 따르면 음성 통화는 24kb의 대역폭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영상통화나 동영상세션의 대역폭 사용량은 300-500kb에 이른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점차 음성과 데이터, 영상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LTE(Long Term Evolution)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의 등장이 이 같은 과제를 해결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는 한편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요 재원은 음성 및 SMS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4G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음성 서비스를 계속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확장 가능하며 상호운영성을 갖춘 동시에 all-IP 환경에 대비한 IMS 및 LTE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VoIP 네트워크 통합 ▲용량 문제 해결 ▲IP 네트워크에서의 세션 관리 및 정책 강화 ▲IP 환경에 해당되는 보안 위협 감지 및 대응 ▲표준화된 아키텍처에서의 네트워크 복잡성 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구현환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WiFi 또는 팸토셀 커버리지 형태의 픽스드 모바일 컨버전스(Fixed-mobile Convergence)솔루션을 추천했다. 소비자들이 이미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광대역 연결을 이용하는 이러한 로컬

CENX의 Nan Chen 과 BDA의 Ted Dean(왼쪽부터)이 '이더넷,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무선 연결은 무선 백홀 부담이 없는 확장성이 높은 경제적인 방법이다.

'All – IP 네트워크' 가 새로운 화두

동시에 보편적인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새로운 단계는 네트워크 복잡성, 상호운영성, 세션 관리, 정책 집행 및 보안 이슈 해결을 지원한다. 이들은 중대한 보안, 미디어 게이트웨이 및 세션 경계 제어 기능을 단일 네트워크 요소로 통합해 네트워크 복잡성을 줄이고 세션 관리 및 정책 강화 기능 제공을 위해 이상적으로 배치된다.

IP를 회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본래 할당된 게이트웨이는 이제 IP 네트워크에서 IP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배치된다.

또한 펨토셀 접속 지점들로부터 공공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IP터널 형태의 강력한 보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선 'LTE를 향한 준비' 라는 주제로 IDC AVP 리서치의 팀 딜런이 진행을 이어갔다.

토론에선 이더넷이 우리 주위 어디든 존재한다는 점에서 All-IP 네트워크는 이 같은 문제를 보다 쉽게 만들어 주지만 백홀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만 했는가와 LTE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광섬유를 깔고 더 많은 구리선을 연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마이크로파가 보다 저렴하며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업계는 서비스의 폭증을 처리할 준비가 됐는가? 또한 단말기라는 측면에서 현재 스마트폰 형식은 향후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너무 제한적인 기능만을 제공하지는 않는가? 라는 문제점을 토론했다.

구글, 아마존 100Gb급 이더넷 환경 절실

마지막 토론은 '40/100Gb 이더넷- 성공적 이더넷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이라는 주제로 맷 워커 오범 수석 연구원 이 진행을 맡았다.

그는 10기가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진행중인 현실을 감안할 때 100Gb 이더넷 언급이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최근 CIR 보고서 조사 결과에 동요하고 있다. 최근 CIR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이 100Gb 연결에 대해 '매우 절실히 요구'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현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값비싼 새로운 기술을 조기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CIR의 조사를 예로 들며 40Gbe 도입은 하이엔드 서버와 고성의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CR4 over-copper의 비용이 보다 낮아지기 전까지는 SR4가 시장의 최대 80%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2014년 시리얼 40Gbit 이더넷이 실현되면 금새 시장에서 입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더넷 역사상 최초로 2006년 Higher Speed Study Group은 서버 및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분야와 네트워크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각각 초당 40기가비트와 초당 100기가비트라는 서로 다른 속도를 필요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CW

참여 패널

테드 딘 BDA 사장 겸 총괄이사, **카밀 멘들러** 양키그룹 글로벌 서비스 전략 총괄 부사장, **테드 딘** BDA 리서치 대표 및 관리이사, **혼 킷 람** 타타커뮤니케이션 IP 프로덕트 관리 및 개발 총괄 수석 이사, **난 첸** MEF 사장 겸 CENT 공동 창립자 & CEO, **S. 나스 프로스트 & 설리반**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 미디어 팀리더 수석연구원, **메멧 발로스** 젠밴드 경영총괄 부사장 , **팀 딜런** IDC AVP 리서치, **맷 워커 오범** 수석 연구원, **마넥 두바쉬** 넷이벤츠 TV 국장